

##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 제20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롬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을 귀가 아프도록 들었는데 아직도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망설여진다.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예수 믿음으로 얻는 결정적인 사실인데 그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것을 설명하는 책이나 글들도 많다. 읽을수록 복잡해지고 혼란해지기도 한다. 이제 이 문제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하면서도 혼란하고 복잡하게 느끼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이것은 지식으로도 알아야겠지만 체험적 상태이기 때문에 말과 글로 배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체험이 정확하다면 설명도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로 이 문제를 밝히 깨닫는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 1. 일반적으로 의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는 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의 : (義) 【명사】

1. 사람으로서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2. '도의(道義)'의 준말.

도의(道義)[- / -이] 【명사】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상의 의리.

의리(義理) 【명사】

1.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2. 신의를 지켜야 할 교제상의 도리.

이상이 사전에 정의 되어 있는 의에 대한 것들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이다. 결국 도덕적 선을 뜻하는 말이다.

성경에 기록된 의도 일반적 의미로는 국어사전의 정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사람의 선하게 사는 행위규범이 된다.

이런 도덕적 행위규범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의 도덕이나 대부분의 종교들도 이것을 가르치며 이 도리를 정말 잘 수행한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추앙한다.

성경이 말하는 의, 예수를 믿어야 얻는 의가 이런 것일까? 물론 아니다.

#### 2. 성경이 가르치는 의의 실상은 무엇인가?

[마12:33-35]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34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 상태에 대한 말씀이다. 악한 사람이 악을 내고 선한 사람이라야 선을 낸다. 선과 악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친다. 그것은 좋은 나무와 좋지 않은 나무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선의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무가 노력하여 되는 것이 아니다. 심는 분이 의의 나무로 심어야 한다.

[사61: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도 의의 열매가 아니고 의의 나무에 대하여 말씀한다. 이것은 의는 어떤 근본적인 것을 뜻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악인이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하여 그가 근본적으로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은 창조주가 의의 나무로 창조하여 심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 3. 구원과 의는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것이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45:8]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구원과 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계시한 말씀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에는 인간이 개입할 자리가 없다. 창조는 오직 창조하실 수 있는 분만이 창조하신다.

[약1:17,18]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낳았다는 말은 “아포쿠에오(ἀποκρέω)”인데 자연분만을 뜻하는 의미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한 사실을 가리킨다. 다른 표현으로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곧 하나님께서 의의나무로 새로 창조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의를 만들 수 없고 의인이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을 때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이다.

### 4.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가?

위에서 설명한대로 사람의 사상이나 행위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한다. 만일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다면 굳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노력하여 의를 이루면 된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신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그것이 내 것이 된다.

[갈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엡2:8-10]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10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 5. 믿음의 의가 최초로 나타는 곳은 어디이며 어떤 일과 관련되었는가?

[창15:1-6] 이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3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4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

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로라.

아브람과 언약하려고 하실 때 있었던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도록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와 약속한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을 믿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었다고 기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여호와라는 칭호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엘로힘)은 일반 명사로 신이라는 말이지만, 여호와는 아브람과 언약을 맺는 인격적 개체로서의 고유명사 이름이다. 그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출3:14,15]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 6. 이때에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롬4:16-18]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신는 이시니라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 즉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부활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해도 된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기록하였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창조와 생명 곧 부활의 하나님이신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에서 풀어서 설명하였다.

## 7.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는가?

[사44:24]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꿰으며 땅을 베풀었고.

[사45:12]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요11:25,2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6:39,40,44] 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히11:17-19]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

생자를 드렸느니라 18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19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위에서도 말했듯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창조주께서 하실 일이지 사람의 행위가 낄 자리가 전혀 없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것이다. 자기는 무자하지만 창조주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분이 그것을 이룰 것을 믿었다. 그는 창조주시오, 또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한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같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다. 이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다.

## 8. 의가 창조와 부활과 관련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사45:8-13]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9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10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1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12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13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 들을 값이나 값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부활과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요 사람이 행위나 생각이 전혀 개입될 수 없는 일이다. 창조와 부활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에 의하여 되는 것이다. 8절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를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다. 아담은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다. 그는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셨다. 그것이 구원이요 의이다. 그래서 진흙으로 만든 토기와 토기장이의 예를 들었고, 자녀를 낳은 부모와 자녀의 예를 들었다. 토기는 만든 자에게 항의할 수 없다. 자식은 부모에게 자기 존재의 근원을 두고 있다. 항의하는 자녀는 존재 근원에 대하여 항의한다. 그렇게 되면 그는 존재를 잃어야 한다. 그러면 항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예를 든 후에 하나님은 사람 창조하신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의로 일으킬 예수께서 아담 안에서 죽어서 없어진 사람들을 부활의 생명을 부여하여 새로운 존재를 만들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의와 구원을 창조하신다는 뜻이다.

의이신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분으로 인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음으로 땅에서 의가 솟아나게 된 것이다. 즉 땅이 열려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함으로 의가 움돋게 된 것이다. 의 곧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실상이다.

[호10:12]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흙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목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시라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호와를 찾는 것이 의를 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의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미 말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의는 예수님과 성령이시다. 그분들로 인하여 사람은 의를 얻는다. 그것은 구원이요 영생이다.

## 9.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며, 무엇을 믿는 것인가?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요10:37,38]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겠거든 믿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믿으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요14: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다음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인하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다. 사람을 믿게 하는데는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행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고전15:13-19]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그가 하신 모든 것을 신뢰한다는 뜻인데, 특히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것은 그분의 부활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의 뜻이 아주 쉽게 이해되는 열쇠를 발견한 것이 아닌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부활뿐만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전부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것이 부활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 전부를 믿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 10. 믿음은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믿는 대상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엡2: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물론 이 구절에서는 믿음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구원에 관계되는 전부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믿음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믿음이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계시한다.

[요14: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처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곧 진실과 신용이 될 때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 예수께서 그의 행하신 일로 사람들에게 그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대로 그 최종적인 행함이 부활하신 것이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제시되었다.

[히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분도 예수님이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다. 믿음은 믿는 대상이 믿는 사람들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예수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부활이라고 계시한다.

## 11.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그 의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으며 왜 율법으로는 그 의를 얻을 수 없는가? 이런 의를 무슨 의라고 하였는가?

[롬3:21,22]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없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율법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다. 율법의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인데,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것이 사람을 부활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드러내셨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이다.**

[롬4:19-25]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3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음을 알았고, 사라의 태도 그렇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인간이 죽은 것이 확인 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것을 살린다는 것을 믿었다. 그것은 곧 부활에 대한 확신이다. 22-25은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보증이 된 것이다.

성경이 드러낸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드러난 부활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이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이다.

[롬10:9,10]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 12. 이런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롬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 있다.

[딤후1:9-11]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라 기록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 이제 우리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

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1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으로 드러낸 것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은 사망을 폐하심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복음은 없다.

[롬1:1-4]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으로 복음이 되었다고 계시한다.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며, 이것을 믿을 때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더 이상 썩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데는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사람이 할 아무런 행위가 없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창조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창조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행위이다. 아브라함은 바로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이다.

[롬4: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 13.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선행이나 율법을 잘 지킨 공로로 얻은 것인가?

[롬4:1-13]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삿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7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9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10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 시냐 무할례 시냐 할례 시가 아니라 무할례 시니라 11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약2:23] 이에 경에 이른 바 이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갈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

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 14.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고후5: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61: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는 말이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이다. 이제 그들은 사망이 주장하지 않고 생명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씀하신다.

[롬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고후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롬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의 나무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안식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이것이 우리의 상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다.